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기관과 손잡고 해외로 갑니다

- 발전설비, 개발협력, 스마트 교통, 물·기후테크 등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
- 협업기관 수요 적합성 검토 거쳐 63개 해외기관에서 55개 제품 실증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이하 해외 실증)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월 9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조달청이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해외수요를 발굴하고, 시범 사용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사무소, 현지 사업처 또는 수출 유망 현지기관에서 실제 사용 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업과 조달청에 제공하게 된다.

이번 해외실증은 ▲발전공기업과 연계한 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한 스마트 교통 수요 연계형,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는 물·기후테크 혁신 수요 연계형, ▲KOICA와 협력한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KOTRA와 함께 추진하는 해외 진출 수요 연계형 등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통해 28개국, 63개 해외 공공기관 수요를 대상으로 총 55개 혁신제품을 선정했으며, 약 156억원 규모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매칭에는 AI, K-의료, 물·기후테크 등 글로벌 수요가 높고 해외 공공 부문 적용 가능성이 큰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선정 제품으로는 베트남 교통기관 수요 인공지능 밀집인파 계수 경보 시스템, 멕시코·칠레 공공의료기관 수요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소프트웨어, 싱가포르 수자원공사 수요 자동 녹조제거 장치 등이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 유망한 제품들이다.

한편, 조달청은 해외실증 규모를 '25년 140억원에서 '26년도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실증 유형 및 지원내용도 다양화했으며, 미래유망 중소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연계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수요매칭은 약 40억원 규모로 '26년 3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해외실증은 해외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며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실증 성과가 실제 계약과 해외 판로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운영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민	(042-724-602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2-724-6023)

